



[뉴스] 與 경선 무효표 후폭풍 이낙연 캠프 결선투표 요구 02



Economy

코스피	2956.30 (0.00)	코스닥	953.11 (0.00)
금리 (국고채 3년)	1.701 (-0.003)	환율 (원/달러)	1194.60 (+4.20) (8일)

DSR 조기 확대, 高DSR 비중 만지작 대출난민 속출 우려... 실수요자 근심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 임박

고DSR 대출 허용비율 축소 다중·고액채무자 대출 차단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검토 실수요자들 피해도 불가피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으로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와 고(高)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고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DSR 규제는 가계대출 억제 수단 가운데 하나로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 금융사 60%가 적용된다.

올해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檢 출석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 1년 후에는 1억원 초과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추가대책을 '상환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한 만큼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보완대책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또한 금융회사별 고DSR 대

출(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은행 유형에 따라 DSR 70% 초과 비중은 신규 대출 취급액의 5~15%, DSR 90% 초과 비중은 3~10%로 관리 중이고 비은행권은 허용 비율이 더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DSR 대출 허용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게 되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고액채무자에 게 추가 대출이 차단되는 효과

가 나타난다"며 "과도한 빚을 내는 것과 금융회사별 신용대출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3분의 1에 이르는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전세대출은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 80~100% 수준인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취임 1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수소사회·전동화 등 미래 혁신 이끌어

정의선 회장(사진)의 1년은 인류의 행복에 대한 물음에 모두가 함께 답을 찾는 혁신의 여정이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오는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정 회장은 인류의 이동에 제약이 허물어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취임 이후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모든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수소연료 전지차·배터리전지차 등 친환경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로보틱스·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등 신사업 확장을 위한 다양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

정 회장은 인류의 삶과 행복, 진보와 발전에 대한 기여가 기업, 즉 현대차그룹의 본질적 사명임을 피력하고 있다. '인류의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굳은 의지로 상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 회장의 행보는 기업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재정의하고 있다.

◆ '인간을 위한' 이동의 무한 진화, 상상의 현실화

정 회장은 그룹 내부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갈

은 의지는 로보틱스,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 수소비전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정 회장은 취임 후 첫 대규모 인수합병(M&A) 분야로 로보틱스를 선택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2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인수하기로 하고, 올해 6월 M&A를 완료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난해 출시한 4족 보행로봇 스팟, 연구용 휴머노이드로봇 아틀라스를 개발하는 등 로봇 운용에 필수적인 자율주행(보행), 인지, 제어 등 종합적인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스턴 다이내믹



스와 협력해 스팟을 활용한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을 개발,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UAM은 현대차그룹의 지향점인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이란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축이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社告

메트로경제 '2021 제약·바이오포럼' 신약개발, 어디까지 왔나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K-방역'으로 이름을 떨칠 정도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변이까지 막기에는 한계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2년 가까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민생 경제가 꺾이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과 같은 방역 정책으로는 코로나19의 근본적인 박멸이 힘들다고 판단,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방역의 '주권 확보'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흡입형,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주요 대기업들도 백신 개발과 생산에 적극 나섰습니다. 제약사와 바이오 벤처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각자의 기술을 공유하며 K-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국내 기업들이 만든 토종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해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도 높은 상황입니다.

전례없는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신약의 주권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언제 다시 겪을지 모를 감염병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독자 기술은 물론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의 플랫폼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메트로미디어는 이번 '2021 제약·바이오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된 신약 개발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신약 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폭넓은 토론과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 주제 : 신약개발, 어디까지 왔나
- 일시 : 2021년 10월20일(수) 14:00~16:30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및 웨비나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기조강연 : 라덱셀 김태순 대표이사(前 신테카바이오 사장)
- 강연1 :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
- 강연2 : 배요한 강스템바이오텍 전무
- 강연3 :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
- 참여방법 : 이메일 등록하면 신청자에게 해당 이메일로 접속 URL 공지
- 등록 및 문의 : 2021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26,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 ※상기 일정 및 강연자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일상회복위' 이번주 출범

'위드 코로나' 시행이 다음달 9일로 구체화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차 접종률이 80%에 육박하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이 전체 60%에 육박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를 논의할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이번 주 출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관련 "11~15일 중 마무리해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뉴스터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첫 동선 대전현충원... 안보 강조 행보 /사진 뉴시스
▲ 이재명 35.8%·윤석열 33.2%... 가상 양자대결서 접전

▲ 여성·MZ세대 지지 저조...이재명 본선 승리 '걸림돌'
▲ 심상정·이재명, "이재명 대항마 자청" 결선 돌입



▲ 홍준표 "야당은 깨끗한 후보가 나서야"...李·尹 동시비판 /사진 뉴시스
▲ 손학규 "이재명, 대장동 사태 밝히고 국민 심판 기다려야"